

# 2025.03.31.(월) 증권사리포트

▶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 삼성전자

### 1Q24 Pre : 메모리 시장의 빠른 회복

[출처] DS투자증권 이수림 애널리스트

#### 1분기 실적 바닥을 확인할 것

1Q25 영업이익은 4.9조원(-24% QoQ, -25% YoY, OPM 6.4%)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한다. 파운드리 부문의 낮은 가동률로 인한 적자 지속과 NAND 재고조정 및 감산에 따른 적자 전환이 주요 원인이다. 디스플레이 역시 비수기 영향과 최대 고객사 내 경쟁심화 지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익이 전망된다. 하지만 동사의 저조한 1분기 실적은 시장에서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Q25 메모리 가격 조기 안정화 및 중국 내 LPDDR4 주문 증가로 인해 동사 실적은 1Q25 저점을 다진 이후 분기 증익 흐름을 기대한다.

#### 빨라진 메모리 가격 반등 시점

최근 중국 내 모바일 DRAM 재고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지며 DDR5에 이어 DDR4 역시 LPDDR4 중심으로 Spot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구환신 보조급 지급 대상인 중저가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되는 LPDDR4 수요를 CXMT의 공급이 전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반기 세트 수요의 증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나 상반기는 확실히 가격이 상승 흐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메모리 업체들이 보수적인 공급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가격 상승에도 공급 확대 기조가 없다는 점이 고객사들의 재고축적センチ먼트를 자극하고 있다.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6,000원으로 상향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4월까지 삼성전자를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Target P/B를 1.3배로 상향하고 목표주가 역시 76,000원으로 상향한다. 메모리 전반 가격 상승으로 메모리 업체 이익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존재하며 범용 메모리, 특히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증가에 따른 동사 이익 회복 강도가 강할 것이다. 또한 2분기 말~3분기 출시 예정인 동사의 HBM3e 12단 개선 제품에 대한 대기 수요 역시 존재한다. 하반기 실수요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하나 단기적으로 현재 레거시 반

등 기대감이 유효한 구간이라는 판단이다. 향후 추세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파운드리 적자 해소와 고성능 메모리에서의 체질 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Financial Data

(십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302,231	258,935	300,871	313,546	324,684
영업이익	43,377	6,567	32,726	32,906	37,921
영업이익률(%)	14.4	2.5	10.9	10.5	11.7
세전이익	46,440	11,006	37,530	39,882	44,616
지배주주지분순이익	54,730	14,473	33,621	33,536	37,577
EPS(원)	8,969	2,225	5,433	5,419	6,096
증감률(%)	40.7	-75.2	144.2	-0.3	12.5
ROE(%)	17.1	4.1	9.0	8.5	9.1
PER(배)	6.2	35.3	9.8	11.4	10.1
PBR(배)	1.1	1.5	0.9	1.1	1.0
EV/EBITDA(배)	3.2	9.7	3.5	4.0	3.5

자료: 삼성전자,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 1Q25 Preview: 4Q24 이연 물량 반영으로 컨센서스 상회 기대

[1Q25 실적] 매출액 9,692억원(+21%, 이하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 2,161억원(+68%), 영업이익률 22.3%(+6.2%p)를 예상.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 +2%, 영업이익 +12%, 영업이익률 +2.1%p의 서프라이즈.

4Q24 이연 물량 반영, 환효과(1Q25 평균 1,450원, +9%), 고정비 부담 감소

[쟁점] '25년 수주는 42억불 전망(가이던스 38억불), 수요 확대가 지속되며 2차 Capa 증설분의 수주 여력 확보. 데이터센터 단기 수요 변동에 대한 초고압 전력기기 영향은 미미. 중장기 성장성 둔화 우려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 미국 관세는 리쇼어링을 가중시켜 전력난 심화로 이어짐, 전력기기 부족으로 관세 압박은 어려울 것, 수요 및 단가 증가로 연결. 업체별 Capa 확대가 공급 과잉으로 연결될지의 판단도 몇 년 후 논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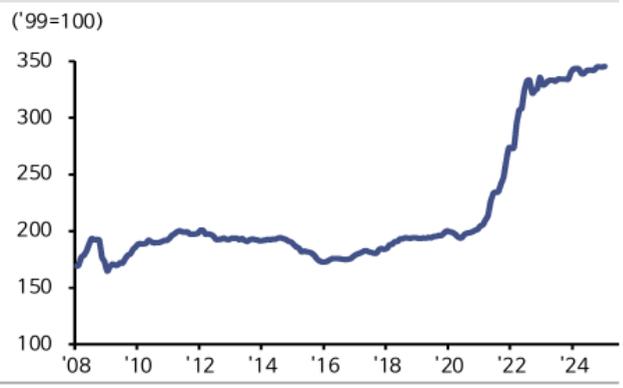
### Valuation & Risk: 장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실적으로 극복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48만원으로 하향(기존 50만원, 4.0%). '25, '26년 평균 추정 주당순이익(EPS) 20,219원(-2.3%)에 국내 전력기기 3사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을 30% 할증한 23.6배를 적용. 북미 관세 이슈, 데이터센터 투자 감소 등의 우려가 있지만 초고압 전력기기 부족은 여전, 사이클의 길이 논란을 실적으로 극복해갈 것이라 판단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3	2,702.8	315.2	259.2	11.4	27.7	2.8	9.6	1.2
2024	3,322.3	669.0	501.6	27.5	39.3	9.2	18.5	1.4
2025F	3,944.4	894.7	635.2	17.3	36.9	5.6	10.7	1.8
2026F	4,457.2	1,098.0	822.5	13.3	38.0	4.6	8.5	1.8
2027F	5,407.4	1,337.4	1,005.6	10.9	39.9	4.1	7.0	1.8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 미국 변압기 P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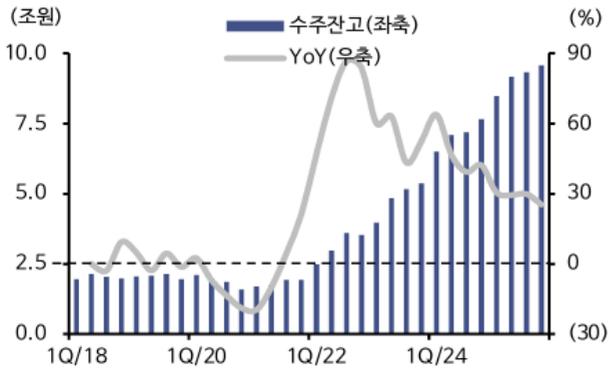
자료: FRED, 신한투자증권

### HD현대일렉트릭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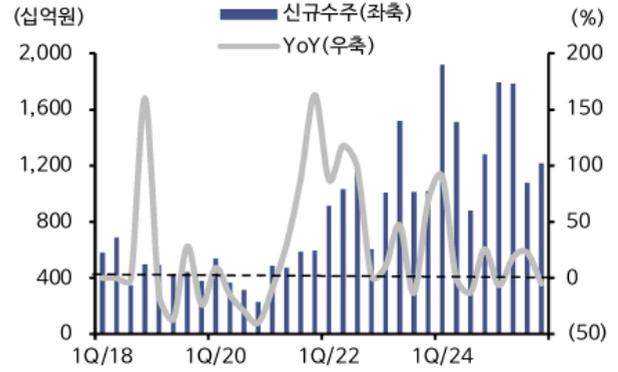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 HD현대일렉트릭 수주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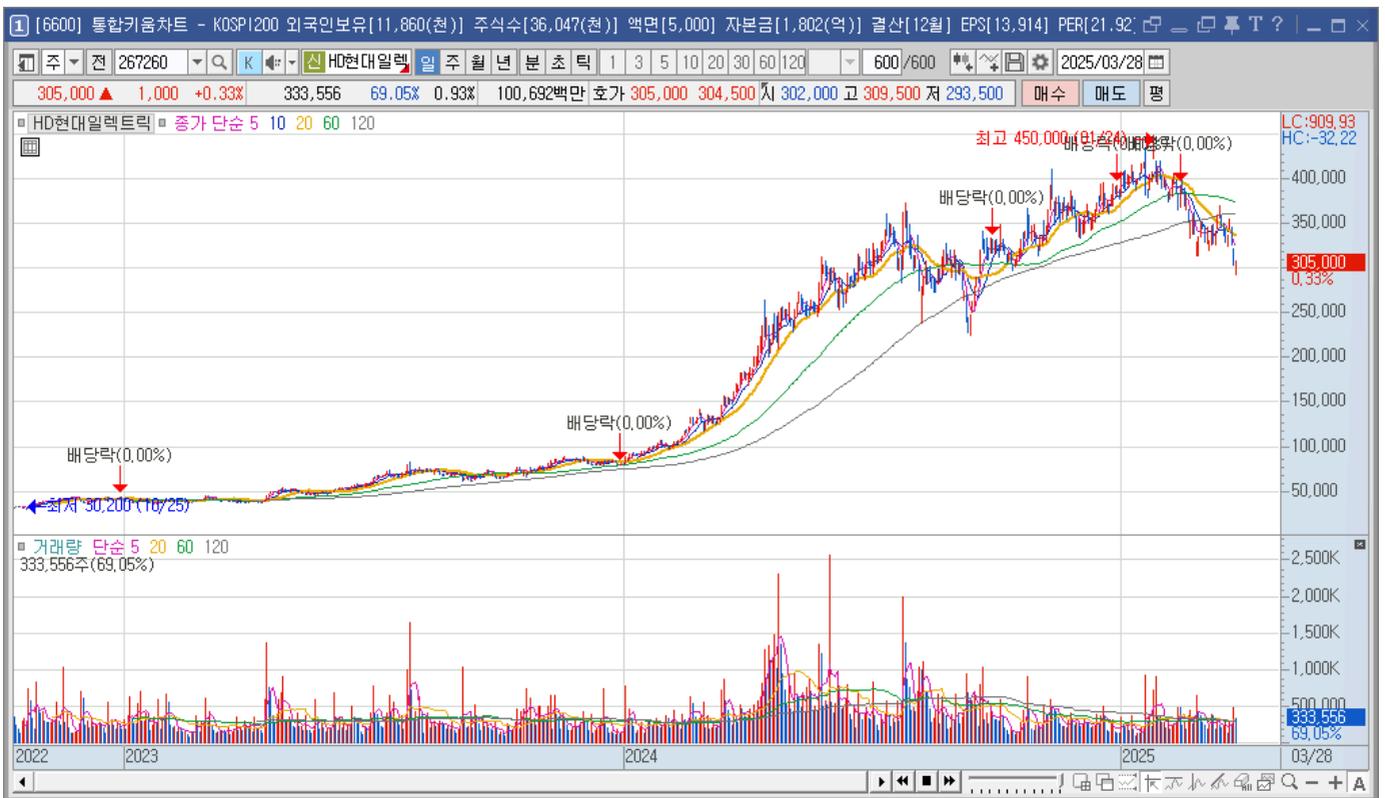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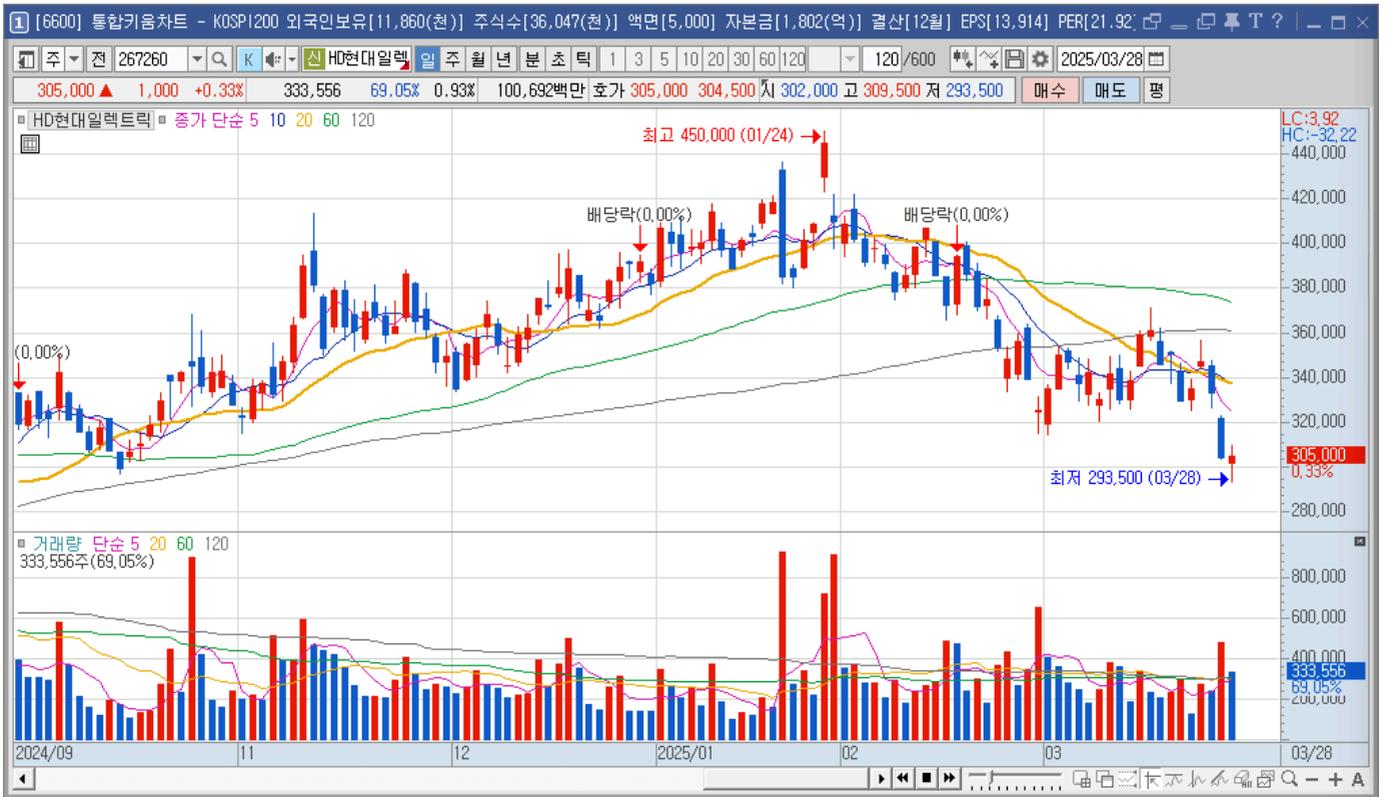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 HD현대일렉트릭 신규수주 추이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 CJ프레시웨이

### 조금씩 풀리는 실타래

[출처] 키움투자증권 박상준 애널리스트

#### 소비심리 반등 흐름은 여전히 유효

CJ프레시웨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소비심리 반등과 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2개 분기 연속 증익 흐름을 이어갈 전망(1Q25E 영업이익: 113억원(+7% YoY))이다. 내수 소비심리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작년 12월 저점(88.4)을 형성한 이후, 올해 1분기에는 90~95 레벨로 회복되는 분위기이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관세 이슈 등으로 회복세가 전월대비 다소 주춤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2분기에도 전반적인 반등 흐름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 수요 회복 구간에서 실적 개선 모멘텀 강화될 전망

따라서, 2분기에는 외식 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수요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판관비 증가를 통제해왔고, 주요 원료 유통 상품의 가격 인상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자재유통 부문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푸드서비스 부문의 실적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파업 영향으로 2분기부터 실적의 기저효과가 존재하고, 신규 수주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의료 서비스가 정상화된다면, 실적 개선 폭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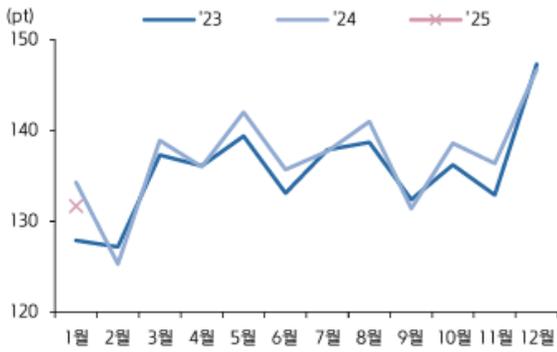
####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2,000원 유지

CJ프레시웨이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를 32,000원을 유지한다. 동사는 올해 기존 고객 중심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전사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상 PER도 5.4배 수준으로 절대적인 레벨 측면에서 여전히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 투자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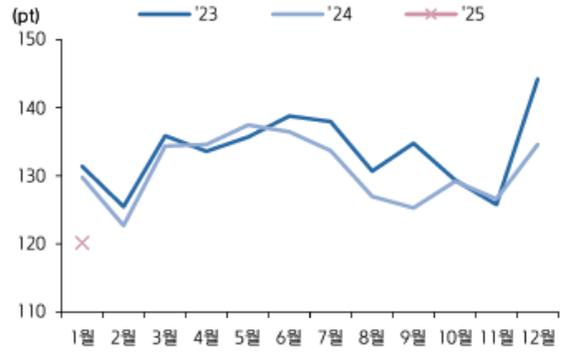
(십억원, IFRS 연결)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3,074.2	3,224.8	3,527.8	3,912.7
영업이익	99.3	94.0	105.1	116.8
EBITDA	133.8	129.1	145.6	156.6
세전이익	72.8	41.8	71.3	85.8
순이익	59.7	27.4	54.1	65.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54.5	25.9	50.1	61.1
EPS(원)	4,589	2,184	4,218	5,144
증감률(% YoY)	11.0	-52.4	93.1	22.0
PER(배)	5.2	8.0	5.4	4.5
PBR(배)	0.98	0.50	0.59	0.53
EV/EBITDA(배)	3.0	2.8	2.3	1.7
영업이익률(%)	3.2	2.9	3.0	3.0
ROE(%)	18.2	7.4	11.4	12.5
순차입금비율(%)	33.0	35.8	13.6	-2.3

### 음식점업 생산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경상지수 기준)

### 주점업 생산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경상지수 기준)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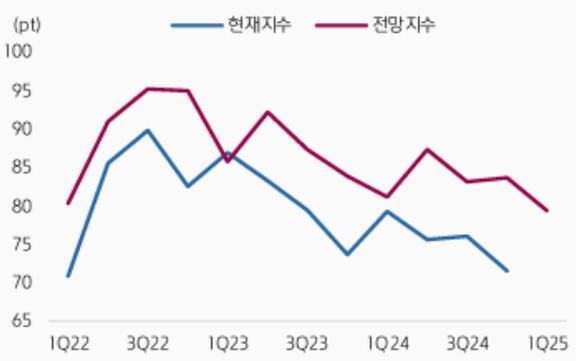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CJ프레시웨이 매출 YoY 증감률 및 판관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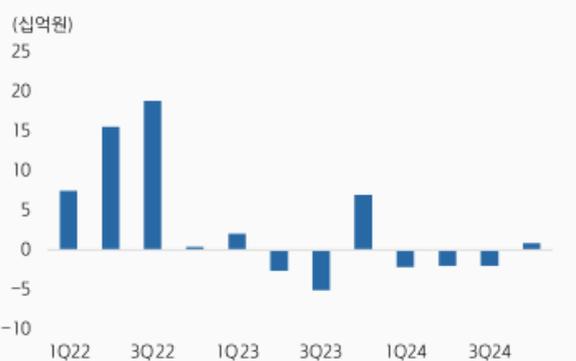
자료: CJ프레시웨이, 키움증권 리서치(연결기준)

###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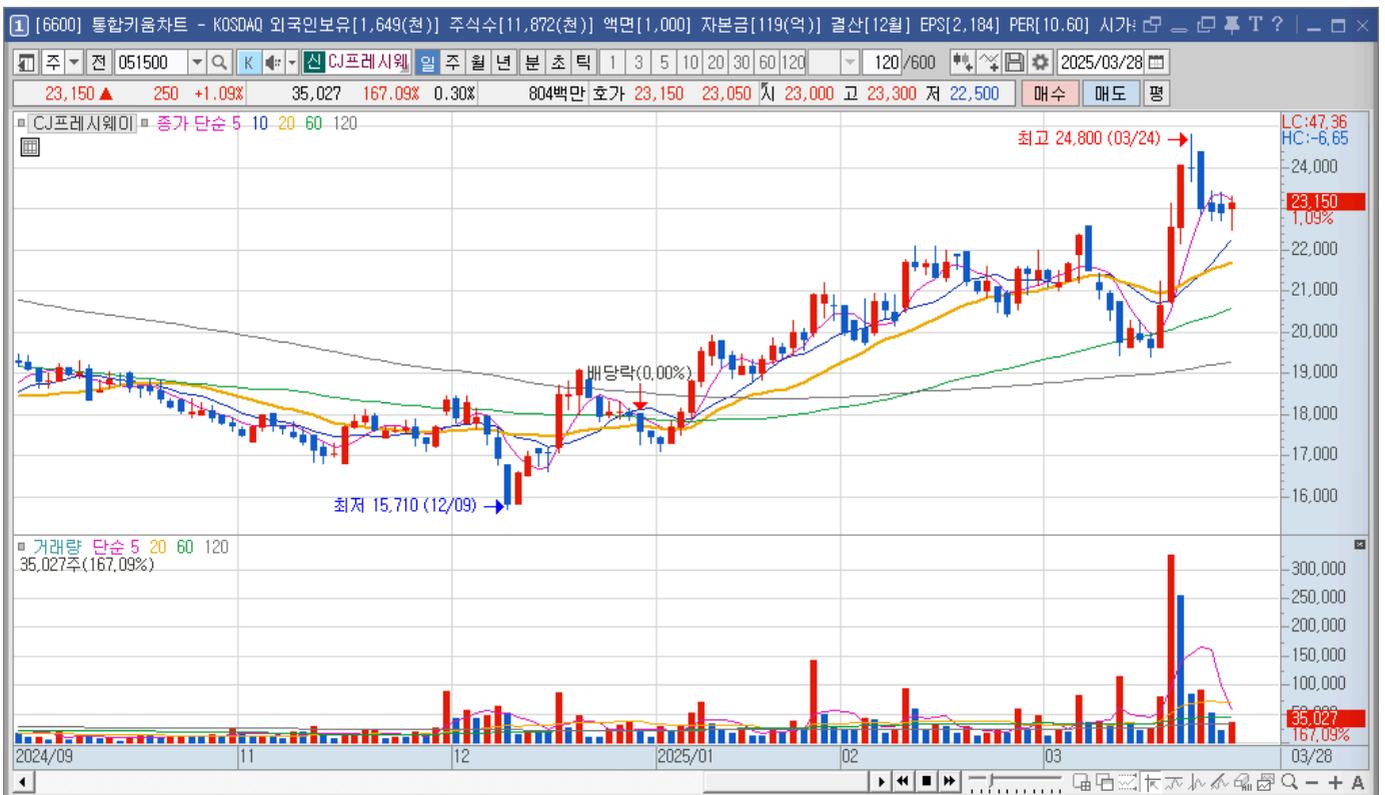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The외식)

### CJ프레시웨이 영업이익 YoY 증감액 추이 및 전망



자료: CJ프레시웨이, 키움증권 리서치(연결기준)



## 카카오게임즈

### 반등의 원년이 될 2025년

[출처] IR협의회 채윤석 애널리스트

#### 카카오 그룹의 게임 퍼블리셔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 게임(매출 비중 86.2%)과 PC 게임(매출 비중 13.8%) 중심의 게임 퍼블리셔로, 종속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가 개발한 '오딘: 발할라 라이징'을 서비스 중. '오딘'은 2021년 국내 출시 당시 구글·애플 마켓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 게임 매출 5위권을 유지하며 장기 흥행 중인 게임. 이 외에도 '아키에이지 워', '우마무스메', '롬', '아레스' 등 다양한 모

바일 MMORPG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PC게임으로는 '배틀그라운드', '패스 오브 엑자일2'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

### **2024년 & 2025년 실적**

2024년 실적은 매출액 6,272억원(-13.6% YoY), 영업이익 191억원(-74.6% YoY)을 기록함. 모바일 게임 부문은 신작 부재와 기존작 부진으로 19.9% 감소한 반면, '배틀그라운드' 중심의 PC 게임 부문은 71.2% 성장하며 양호한 성과를 기록함. 2025년에는 매출 6,162억원(-1.8% YoY), 영업이익 229억원(+19.5% YoY)으로 전망됨. 국내에서 기존 작품들의 매출 하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딘'의 글로벌 확장과 신작 라인업 출시가 매출 하락세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 PC게임 부문에서는 '배틀그라운드'의 안정적인 매출 유지와 '패스 오브 엑자일 2(POE2)'의 신규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됨

###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에 위치한 주가**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2021년 이후 PBR 0.9x ~ 5.0x 범위 내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현재 주가는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PBR 1.0배 수준으로, 과거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음. 현재 주가는 동사의 단기 실적 부진과 기대감 약화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다수의 신작 출시와 '오딘'의 글로벌 확장 등의 모멘텀을 고려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레이팅 가능성도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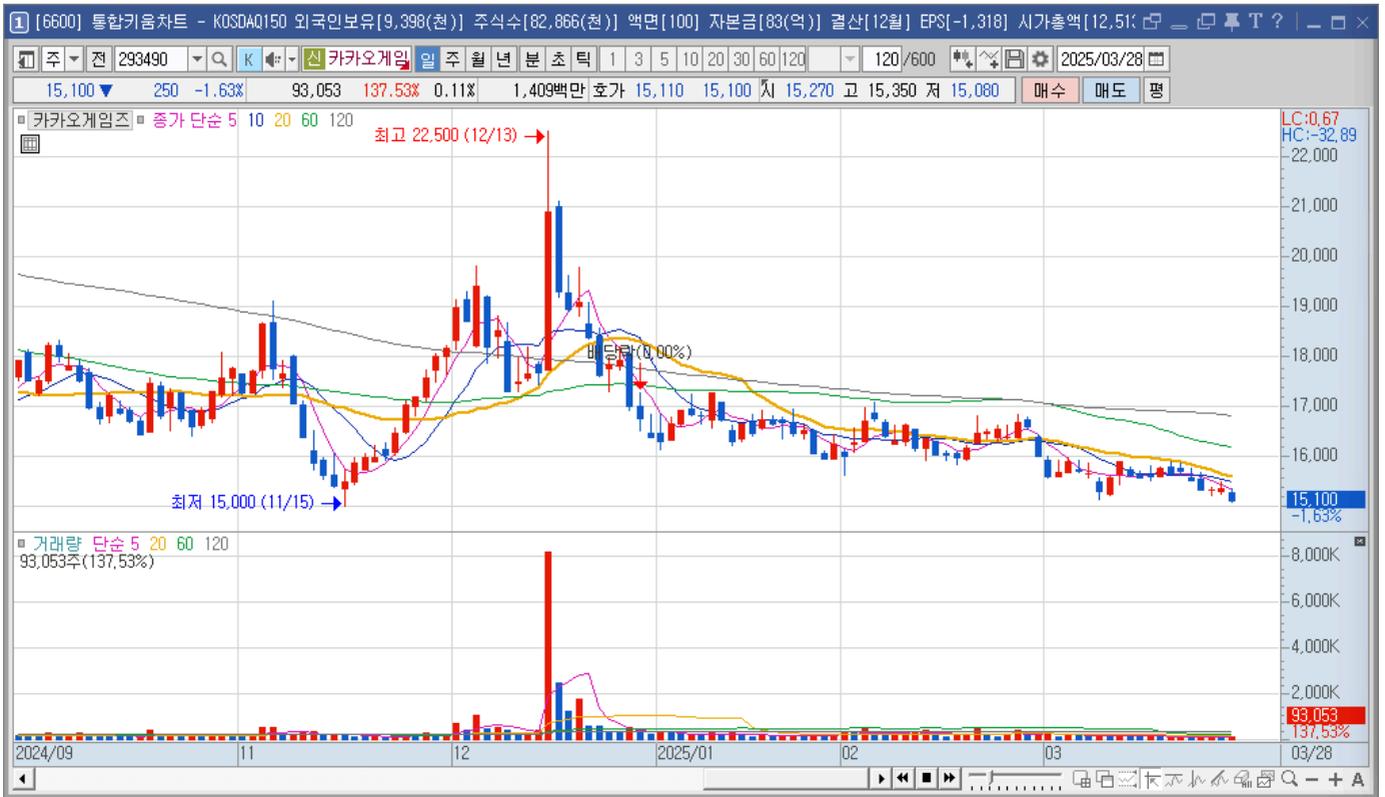
##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10,125	11,477	7,258	6,272	6,162
YoY(%)	104.3	13.4	-36.8	-13.6	-1.8
영업이익(억원)	1,119	1,758	754	191	229
OP 마진(%)	11.1	15.3	10.4	3.1	3.7
지배주주순이익(억원)	5,287	-2,336	-2,287	-1,089	69
EPS(원)	7,061	-2,929	-2,774	-1,318	84
YoY(%)	412.0	적전	적지	적지	흑전
PER(배)	12.9	N/A	N/A	N/A	185.6
PSR(배)	6.7	3.1	2.9	2.2	2.1
EV/EBITDA(배)	45.6	16.6	16.7	20.9	32.1
PBR(배)	3.4	2.2	1.5	1.0	1.0
ROE(%)	34.1	-12.4	-14.9	-8.0	0.5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주) 2023년부터 세나테크놀로지 및 카카오브이엑스 부문의 실적은 중단영업부문으로 분류 및 제외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에이비엘바이오

### BBB와 이중 항체의 시간이 온다

[출처] 키움증권 허혜민 애널리스트

#### 첫 플랫폼 기술 이전 기대

로슈의 BBB서플 기술을 적용한 이중항체 Trontinemab ( $\beta$ -amyloid x TfR)의 저용량(3.6mg/kg) 투여 시 12주째에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뇌혈관장벽(BBB)투과 이중항체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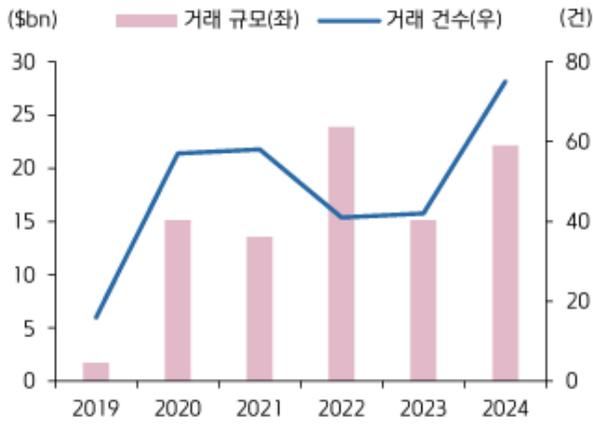
'24.10월 애브비는 TfR을 활용한 BBB투과 플랫폼 기업 Aliada를 \$1.4bn에 인수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애브비가 ABBV-916(항a-beta항체, 2상) 중단 결정 몇 달 후에 결정한 것이다. 단일 항체 개발에 실패한 빅 파마들이 BBB투과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Alynlam, Sarepta와 같은 유전자 치료제 및 RNAi 개발기업들이 간(Liver)에서 중추 신경계(CNS) 질환으로의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동사에 기술 이전 활동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추 신경계 질환은 안전성이 중요한데, 지난 '24.10월 사노피에 ABL301(a-synxIGF1R) 제조기술 이전을 마쳤다고 보도되었으며, 이는 사노피측이 1상에 안전성과 투과율에 대해 어느정도 확신을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1상에서 안전성과 뇌 투과율 데이터를 확보하여, 플랫폼 기술 이전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BBB투과 플랫폼으로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첫 플랫폼

기술 이전으로 향후 연속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BBB투과 플랫폼 외에도 콤파스테라퓨틱스에 기술 이전한 ABL001(VEGFxDLL4, 2/3상)이 담도암으로 2/3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클라우딘18.2 양성 전이성 위암 환자 대상 ABL111(CLDN18.2x4-1BB)+옵디보+화학요법(FOLFOX) 병용 1b상 중으로 '25.2H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ummit의 Ivonecimab(PD-1xVEGF)의 EGFR 폐암 화학 병용 2차 데이터가 올해 중순으로 예상됨에 따라 점차 이중항체 모달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동사 역시 다수 임상 데이터 확보 예정으로 플랫폼에 대한 재평가 및 추가 기술 이전을 기대해본다.

### 전세계 이중항체 기술 거래 추이



자료: Cortellis,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BBB투과 플랫폼 개발사 Denali 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리가캠바이오 시가총액 추이와 기술 수출



자료: QuantWis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에이비엘바이오 시가총액 추이와 기술 수출



자료: QuantWis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현대글로비스

### 과도한 우려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 과도한 우려에 따른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를 제공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6.4만원(2025년F 목표 P/E 9.3배)을 유지한다. 완성차가 미국 생산을 늘리면서 완성차 해상운송(PCTC) 매출액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있으나 이는 과도한 우려이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판단이다. 지난 5년간 고객사의 미국 도매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생산과 한국 수출이 동반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글로비스가 수요 초과 시기에 중국 완성차를 포함해 타OE 물량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면서 PCTC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고객사의 해외 생산의 증가는 현대글로비스의 다른 주력 사업들인 CKD와 해외 물류의 성장도 가져오기 때문이다. 현재 주가는 P/E 7배, 기대 배당수익률 3.4% 수준이다.

#### 해외 생산이 늘어나도 수출은 줄지 않았고, 현대글로비스의 PCTC 매출액도 증가

현대차/기아가 해외 전체 및 미국 생산을 늘렸지만, 한국발 수출물량이 줄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현대차/기아의 중국 제외 해외 생산대수는 254만대에서 338만대로 33% 증가했지만, 한국에서 생산 후 수출한 대수는 156만대에서 218만대로 40% 증가했다. 미국만을 보면, 미국 내 도매판매 대수는 2020년 124만대에서 2024년 185만대로 49% 증가한 가운데, 미국 내 현대차/기아의 생산대수는 49만대에서 71만대로 47% 증가했고, 한국 생산 후 수출한 대수는 59만대에서 101만대로 74% 증가했다. 현대차/기아가 미국 내 판매 호조가 미국 내 생산과 한국발 수출을 동반 증가시킨 것이다. 만약 관세 등의 여파로 미국향 수출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현대글로비스의 PCTC 매출액은 2020년 1.7조원에서 2024년 4.0조원으로 135% 증가했는데, 완성차의 수출 증가와 함께 수출물량의 담당 비율 상승, 믹스 및 환율 효과, 그리고 타OE 물량 확대 등에 기인한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PCTC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타OE 물량을 전략적으로 확대 중이다.

#### 해외 생산이 늘어나면 CKD와 해외 물류가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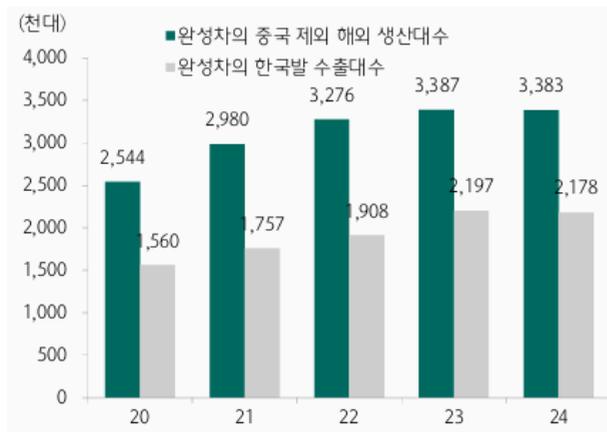
현대글로비스의 2024년 전체 매출액 중 PCTC 비중은 14%이다. 반면, CKD 비중은 40%, 해외 물류의 비중은 28%이다. 완성차의 해외 생산이 늘어날 경우, 부품 현지화율이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CKD 물량이 늘어나고, 부품 및 완성차 내륙운송도 증가하면서 해외 물류가 커질 것이다. 2020년~2024년 완성차의 해외 생산대수가 18% 증가할 때(중국 제외 해외 생산대수는 33% 증가, 미국 생산대수는 47% 증가), 현대글로비스의 CKD 매출액은 75% 증가했고, 해외 물류 매출액은 93% 증가했다. 참고로 현대글로비스의 2024년 부문별 영업이익률은 물류(국내/해외) 8.4%, 해운(PCTC/벌크) 7.1%, 유통(CKD/기타) 4.2%로 물류>해운>유통 순으로 수익성이 좋다.

##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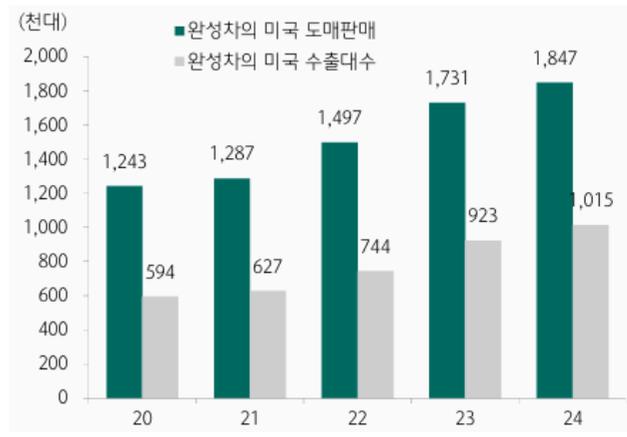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5,683.2	28,407.4	29,992.8	31,342.4
영업이익	1,554.0	1,752.9	1,882.2	1,995.5
세전이익	1,453.4	1,544.7	1,796.8	1,961.9
순이익	1,061.1	1,093.9	1,312.1	1,432.7
EPS	14,148	14,585	17,495	19,102
증감율	(10.82)	3.09	19.95	9.19
PER	6.77	8.10	7.32	6.70
PBR	0.93	1.01	0.98	0.88
EV/EBITDA	3.18	3.55	3.20	2.67
ROE	14.51	13.24	14.12	13.83
BPS	103,405	116,975	130,770	145,472
DPS	3,150	3,700	4,400	4,800

도표 1. 완성차의 해외 생산대수와 한국발 수출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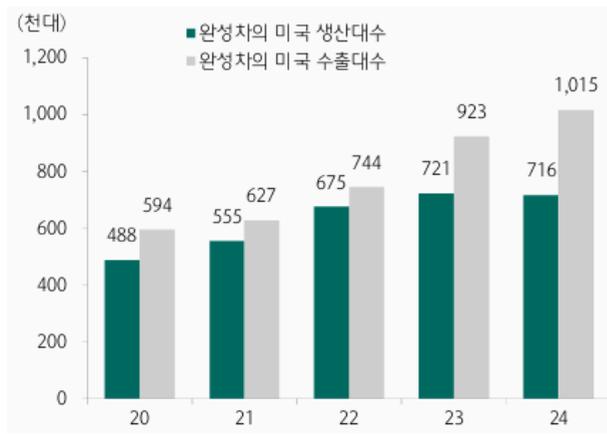
자료: 현대차, 기아, 하나증권

도표 2. 완성차의 미국 도매판매와 한국발 수출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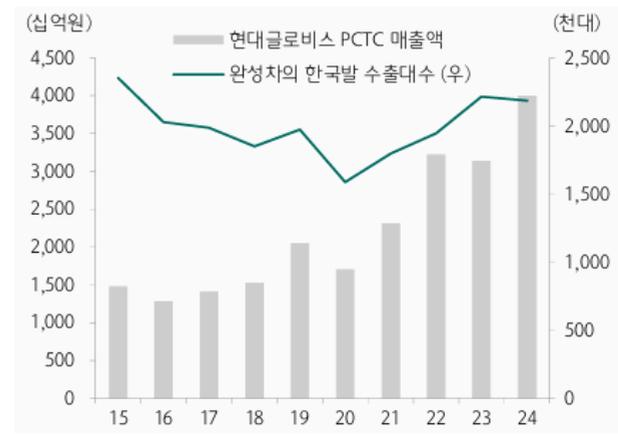
자료: 현대차, 기아, 하나증권

도표 3. 완성차의 미국 생산대수와 한국발 수출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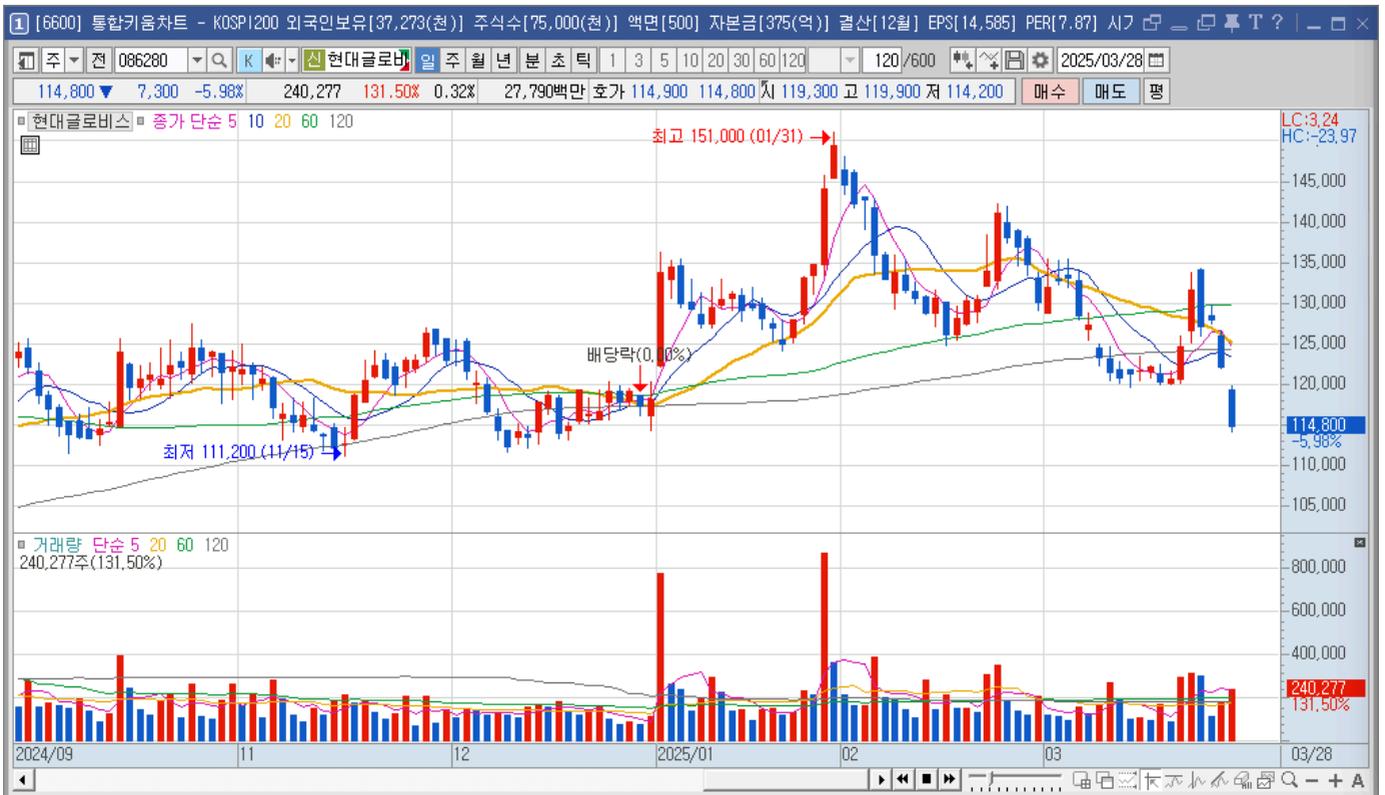


자료: 현대차, 기아, 하나증권

도표 4. 완성차의 한국발 수출 대수와 현대글로벌비스의 PCTC 매출액



자료: 현대글로벌비스, 하나증권



## 태웅

### 전 세계에서 찾는 K-단조

[출처] NH투자증권 광재혁 애널리스트

#### 해상풍력과 조선이 있는데, SMR까지 할 줄 아는 단조업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0,000원으로 기존 대비 17.6% 상향. 목표주가 상향은 SMR향 단조 부품 추가 수주 가능성 감안, 기타 단조부문(플랜트, 발전 등)의 2025~2027년 실적 추정치 및 Target

multiple(3.0배→6.0배) 상향에 기인. 목표주가는 2025년 PER 12.2배에 해당. 풍력, 조선 비교기업의 2025년 평균 PER 13.3배 대비 낮은 수준

태웅은 최근 캐나다 SMR 단조 부품 계약에 성공. 기타 단조부문의 새로운 전방 산업이 열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경쟁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 충분. 이는 동사 기타 단조부문의 실적 추정치, Target multiple 상향 요인. 또한 현재 Norfolk(영국)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 중임을 발표. Norfolk는 총 2.8GW의 대형 프로젝트로, 2.3만톤 수준의 플랜지를 필요로 함. 해당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높다고 판단. 수주 시, 2025년 풍력 부문 매출 견인할 전망

### **1분기: 비수기지만, 수익성 개선 방향 명확**

2025년 1분기 매출액 904억원(+0.3% y-y, -16.2% q-q), 영업이익 55억원(-14.3% y-y, -7.9% q-q, 영업이익률 +6.1%)을 기록할 전망. 해상풍력용 플랜지의 납기가 고객사의 프로젝트 진행 시점에 따라 2분기에 집중되며, 수익성 개선이 2분기에 큰 폭으로 나타날 전망. 2025년 연간 제강공장 가동률도 기타 단조부문 외형성장에 따라 70.0%를 상회하며, 전사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

	2024P	2025E	2026F	2027F
매출액	386.3	434.1	508.3	536.7
증감률	-12.9	12.4	17.1	5.6
영업이익	22.8	39.9	59.6	63.9
증감률	-42.3	74.7	49.4	7.3
영업이익률	5.9	9.2	11.7	11.9
(지배지분)순이익	24.7	32.9	48.6	53.3
EPS	1,237	1,642	2,428	2,665
증감률	-27.5	32.8	47.8	9.8
PER	9.6	9.0	6.1	5.6
PBR	0.4	0.5	0.4	0.4
EV/EBITDA	7.0	5.6	3.8	3.0
ROE	4.4	5.3	7.3	7.5
부채비율	34.4	31.2	28.0	24.9
순차입금	68.5	42.2	8.2	-42.6

단위: 십억원, %, 원, 배



주 전 044490 K 태웅 일 주 월 년 분 초 틱 1 3 5 10 20 30 60 120 120/600 2025/03/28

14,020 310 -2.16% 117,489 99.37% 0.59% 1,640백만 호가 14,090 14,020 시 14,430 고 14,480 저 13,750 매수 매도 평

